

돼지고기값 고공행진... 햄·돈가스값도 '굉충'

AI 여파·휴가철 특수 ... 8월까지 품귀 이어질 듯

광주 대형마트 삼겹살 1kg 2만2400원... 전년비 16% ↑

돼지고기값 고공행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 캄보디아 확산에 휴가철 특수까지 겹쳐 돼지고기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돈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돼지고기 가격 인하에 나서는데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한동안 '금(金)고기'를 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하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7월 돼지 관측월보'에 따르면 휴가철인 7월과 8월 전국 돼지 도축 마릿수는 229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

다봤다.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비육돈(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이 찌도록 기르는 돼지) 생육 지연으로 도축 마릿수는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휴가철이 겹치면서 8월까지 돼지고기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7월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5600~5800원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8월에는 7월 보다 다소 떨어진 kg당 5200~5400원선에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돼지고기 가격 고공 행진이 햄

가격 등 관련 제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햄과 CJ제일제당의 캔햄과 냉장햄 가격은 최고 16%까지 오른 상태다. 동원F&B도 내달 초 햄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락용으로 인기만점인 돈가스도 지난 4월 4.2%나 올랐다.

돼지고기값 상승에 주부 김모(41)씨는 "가격이 높은 삼겹살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앞다릿살이나 등심·목살을 이용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가격 고공행진에 정부당국은 물론 유통업체와 한돈협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정부는 8월까지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성수기로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적정 수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수급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상

승에 따른 가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방침이다.

또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저지방방위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추진해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단체 등 업계의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돼지고기·수급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삼겹살(1kg 냉동)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2만2215원으로 한달 전(2만440원)에 비해 8.0% 올랐다. 광주 대형마트에서도 25일 현재 삼겹살 1kg이 지난해 가격(2만1800원)보다 2.7% 오른 2만2400원에 팔리고 있다. 전년(1만8800원)에 비해서는 16.1% 오른 가격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5.05 (+13.28)
- ▲ 금리 2.71% (+0.02)
- ▲ 코스닥 530.04 (+2.78)
- ▼ 환율 1016.20원 (-4.80)



캐리어에어컨, '노사화합 공동선언' 발표

캐리어에어컨은 26일 광주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모여 '노사 화합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캐리어에어컨 노사는 이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3가지 공동선언문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출용 납기 준수를 보장하고 상호 신뢰와 화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생산성 혁신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 ▲광

주공장의 발전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신제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며 해외 수출 물량의 확대와 신상품의 광주공장 생산을 적극 추진 등을 채택했다.

캐리어에어컨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수출용 납기 준수를 위한 부분규를 선언했으며 올해 단체교섭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시스템을 갖추는데 의견을 모으고 노사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껌질째 드세요"... '애를 수박' 눈길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에 껌질째 먹을 수 있는 '애를 수박'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껌질도 먹을 수 있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음식을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이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작은 크기로 휴대성이 좋아 캠핑 등 나들이 간식으로도 제격이다. 1통에 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 백화점들 오늘부터 여름 정기세일

10억원 경품 행사, 푸드 상품전 등 풍성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27일부터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백화점들은 한 달간 진행될 세일의 초반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세월호 이후 침체상태에 있는 매출을 만회한다는 각오다.

광주신세계는 29일까지 세계 유명 디저트 브랜드인 일본 카스테라 '분메이도', 대

만의 전통 국민간식 '편리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수제캔디 '파파버블' 상품을 지역 최초로 선보인다. 같은 기간 '바르는 대신 먹어서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테마로 '이너 뷰티 푸드 상품전'도 진행한다. 호박고구마, 단감, 동근마 등 국산 식재료를 건조시킨 식품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공액리놀레산(CLA) 등이 판매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인 10억원을 건 대형 경품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로 매출향상을 노리고 있다. 롯데는 세일기간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10억원을, 2등 당첨자 2명은 1억원씩, 3등 5명은 1000만원씩, 4등 당첨자 100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점은 이번 세일

기간 '명작'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마케팅과 각종 이벤트를 연다. 모네, 시냐크 등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이용한 쇼핑백, 쿠폰북이 광고물이 준비됐다. 세일 첫 주말에는 모네의 명화를 포장지로 만든 '명작 아이스크림'을 3일간 매일 1000명에게 선착순 증정한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는 모네와 드니의 그림이 담긴 향기부채도 나눠주기로 했다. 세일기간 매주 토요일에는 ▲거리의 악사 공연 ▲저클링 공연 ▲인형극 공연 ▲미니 프랑스 오페라 ▲판토마임 공연이 펼쳐진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 상반기 아파트가격 1.5% 상승

광역시중 대구 이어 두번째

전남은 1.2% 하락

광주지역의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나 상승했다. 반면 전남은 1.20% 하락했다.

26일 KB부동산이 내놓은 '2014 6월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51%나 오르며 지방 5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4.0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다.

급등하는 전세가격에 따라 매매전환 수요가 발생, 중소형 매물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 원인이다.

지방 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광주에 이어 울산(1.44%)도 강세를 보였다. 5개 광역시는 올 상반기 1.64%나 상승하며 전년 동기(0.97%)보다 0.67%포인트나 가격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2011년, 2012년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끌었던 부산(0.50%)은 기존 상승분에 대한 부담으로 소폭의 상승세에 그쳤고, 대전(0.25%)도 상승 기운이 미미했다. 전북(-0.49%), 전남(-1.20%)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비로 약세를 보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서비스품질 평가 고속버스부문 1위

금호고속(대표 김성산)이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시상식'에서 고속버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금호고속은 10년 연속이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금호고속은 본원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적극

지원성,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 등 7가지 부분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는 한국표준협회(KSA)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지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뽀깡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